

신라의 여인왕생 인식과 의미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를 중심으로

Shilla peoples perception of the Concept of Reborn as a female, and Its meaning

저자
(Authors) 이현주
Lee Hyun-ju

출처
(Source) [역사와현실 \(106\)](#), 2017.12, 85-118(34 pages)
[YKSA WA HYSNLSIL :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106\)](#), 2017.12, 85-118(3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역사연구회](#)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86288>

APA Style 이현주 (2017). 신라의 여인왕생 인식과 의미. 역사와현실(106), 85-11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1/09/24 14: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여인왕생' 인식과 의미

- 『삼국유사』 「육면비염불서승」조를 중심으로

이 현 주*

머리말

1. 육면설화의 이해
2. 육면설화의 역사적 배경
3. '여인왕생' 인식과 육면설화의 의미

맺음말

머리말

불교가 수용된 이후에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성불(成佛)의 대상과 자격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도 성불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이다. 신라사회에서 여성성불과 관련된 사례는 육면이 유일하다. 또한 육면설화는 『삼국유사』 감통편에 두 번째로 실리고 있어 그 중요도를 알 수 있다. 육면설화는 『삼국유사』에 <향전>, <승전>, <징본전> 등의 3가지 저

* 아주대학교 강사

대표논저: 2015 「신라 중대 왕후의 책봉과 위상 정립」 『역사와 현실』 95 : 2017 「신라 중고기 왕실여성과 불교 -영흥사의 창건과 도유나랑을 중심으로-」 『사림』 60 : 2017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85

본이 모두 실려 있고, 각각 전하는 내용도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과 『왕생전(往生傳)』 등에서도 옥면설화를 전하고 있다. 이들 기록은 시기와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료 검토를 통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라의 여인왕생은 ‘여성성불’의 관념으로 연구되었다. 불교학에서 ‘여성성불’의 개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¹⁾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성불’과 관련된 불교경전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여성성불’ 개념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또한 역사학에서도 ‘여성성불’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²⁾ 이들 연구는 ‘여성성불’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의미를 도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불경의 ‘성불’ 개념으로 볼 때, ‘여성성불’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옥면을 역사적 실존인물로 보고, 그 역사적 배경을 고찰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옥면설화의 시기와 장소를 각각 경덕왕대의 영주로 추정하였고³⁾ <금강산건봉사사적>과 『삼국유사』의 사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옥면과 만일결사의 역사적 시기를 고찰하였다.⁴⁾ 이들 연구는 사료에서 상충되는 두 시기, 즉 중대의 경덕왕대와 하대의 애장왕과 헌덕왕 대라는 시기를 정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옥면설화에서 보이는

-
- 1) 安玉善, 1998 「초기 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 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哲學研究』 68 ; 이현옥, 2003 「여성성불의 근거와 그 의미」 『불교학보』 40 ; 李秀昌(摩聖), 2007 「佛敎의 女性成佛論에 대한 檢討」 『韓國佛敎學』 48 ; 구자상, 2010 『여성성불의 이해』, 불교시대사 ; 이창숙, 2015 『불교의 여성성불사상』, 인복스
 - 2) 조경철, 2009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 ; 김영미, 2003 「高麗 眞覺國師 惠諶의 女性成佛論」 『梨花史學研究』 30 ; 2005 「고려시대 아미타신앙과 여성성불론」,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학술제』 13
 - 3) 崔成烈, 1981 「三國遺事 郁面婢念佛西昇條의 몇 가지 問題點」 『韓國佛敎學』 6
 - 4) 辛鍾遠, 1982 「三國遺事 〈郁面婢念佛西昇〉條에 대한 一考察」 『史叢』 26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이해를 구분하여 파악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⁵⁾ 이처럼 옥면을 실존인물로 파악하고, 역사적 배경을 고찰한 연구는 당대 신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설화화되는 과정과 그것이 신라사회에 갖는 의미에 대해 간과하였다. 옥면설화의 역사성과 설화성, 옥면이 신라사회에 갖는 의미를 '여인왕생'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옥면설화를 신고 있는 사료를 분석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추출하고, 그것이 신라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옥면설화의 사료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추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옥면설화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옥면설화에서 보이는 '여인왕생'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옥면설화가 갖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옥면설화의 이해

옥면설화를 전하는 사료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삼국유사』 감통편에 실려 있는 <옥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조이고, 다른 하나는 1928년에 이대련(李大蓮)이 편찬한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에 실려 있는 금강산건봉사사적으로, 총 5종의 사적이 전해진다.⁶⁾ <사적>은 금강산 건봉사에서 행해진 미타결사의 연혁을 기록한 것이

5) 신종원, 2009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에 보이는 역사와 설화」 『전통문화논총』 7

6) 1권. 활자본. 1928년에 건봉사에서 발견되었다. 권두에 이대련(李大蓮)의 서문이 있다. 건봉사와 그 말사의 역사를 편년체 형식으로 집성한 것으로, 건봉사를 비롯하여 백담사(白潭寺)·신흥사(神興寺)·낙산사(洛山寺)·화암사(禾巖寺)·명주사(明

주된 내용이고, 『삼국유사』의 감통편의 <옥면비염불서승>조는 옥면이라는 여자노비가 염불을 통해 성불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사적>의 옥면설화는 『삼국유사』의 <옥면비염불서승>조가 저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료에서 보이는 옥면설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은 『삼국유사』 감통편의 사료이다.

- A-1) ① 경덕왕(景德王) 때 강주(康州 ; 지금의 진주晉州, 또는 강주(剛州)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순안順安이다)의 남파 신도 수십 명이 뜻을 서방(西方)에 구해서 고을의 경계에 미타사(彌陀寺)를 세우고 만일을 기약하여 계(契)를 만들었다. ②이때 아간(阿干) 귀진(貴珍)의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을 옥면(郁面)이라 했다. 그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에서 중을 따라 염불(念佛)했다. 그 주인은 그녀가 그 직분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미워하여 매양 곡식 두 섬을 주어 하룻밤 동안에 다 쪼으라 했더니, 계집종은 초저녁에 다 쪼여 놓고 절에 가서 염불하여(속담에 말하기를, “내 일이 바빠서 주인 집 방아 바빠 쪼는다” 한 것은 대개 여기에서 나온 말인 듯싶다)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녀는 뜰 좌우에 길다란 말뚝을 세워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 위에 메고는 합장(合掌) 하면서 좌우로 흔들어 자기를 격려했다. 그 때 하늘에서 부르는데, “옥면랑(郁面娘)은 당(堂)에 들어가 염불하라” 하였다. 절의 중들이 듣고 계집종을 권해서 당에 들어가 전처럼 정진(精進)하게 했다. ③얼마 안 되어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에서 들리더니 옥면은 몸을 솟구쳐 집 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서쪽으로 교외(郊外)에 가더니 해골(骸骨)을 버리고 부처의 몸으로 변화하여 연화대(蓮花臺)에 앉아서 큰 광명을 발사하면서 서서히 가버리니, 음악소리는 한참 동안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당(堂)에는 지금도 구멍이 뚫어진 곳이 있다고 한다(이상은 향전에 있는 말이다).⁷⁾

珠寺)·영혈사(靈穴寺)·수타사(壽陀寺)·심곡사(深谷寺)·오제암(烏啼庵)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 1973년에 간행된 『韓龍雲全集』에 재수록되었다. 이하 <사적>

A-2) <승전>을 상고해 보면 이렇하다. ① 중 팔진(八珍)은 관음보살(觀音菩薩)의 현신(現身)으로서 무리들을 모으니 1,000명이나 되었는데,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노력을 다했고, 한 패는 정성껏 도를 닦았다. 그 노력하는 무리들 중에 일을 맡아 보던 이가 계(戒)를 얻지 못해서 축생도(畜生道)에 떨어져서 부석사(浮石寺)의 소가 되었다. ② 그 소가 어느날 불경을 등에 싣고 가다가 불경의 힘을 입어 아간(阿干) 귀진(貴珍)의 집 계집종으로 태어나서 이름을 옥면(郁面)이라고 했다. 옥면이 일이 있어 하가산(下柯山)에 갔다가 꿈에 감응해서 드디어 불도를 닦을 마음이 생겼다. 아간의 집은 혜숙법사(惠宿法師)가 세운 미타사(彌陀寺)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다. 아간이 항상 그 절에 가서 염불하는데 옥면도 따라 뜰에서 염불했다고 한다. ③ 이렇게 하기를 9년, 을미년(乙未年) 정월 21일에 부처에게 예배하다가 집의 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소백산(小伯山)에 이르러 신 한 짝을 떨어뜨려 그곳에 보리사(菩提寺)를 짓고 산 밑에 이르러 그 육신(肉身)을 버렸으므로 그곳에 제2 보리사를 짓고 그 전당(殿堂)에 방(榜)을 써붙여, '옥면(郁面) 등천지전(登天之殿)'이라 했다. 집 마루에 뚫린 구멍이 열 아름이나 되었는데 아무리 폭우(暴雨)나 세찬 눈이 내려도 집 안은 젖지 않았다. ④ 그 뒤에 호사자(好事者)들이 금탑(金塔) 하나를 만들어 그 구멍에 맞추어서 승진(承塵) 위에 모셔 그 이상한 사적을 기록했으니, 지금도 그 방(榜)과 탑(塔)이 아직 남아 있다. 옥면이 간 뒤에 귀진도 또한 그 집이 신이(神異)한 사람이 의탁해 살던 곳이라 해서, 집을 내놓아 절을 만들어 법왕사(法王寺)라 하고 토지를 바쳤는데 오랜 뒤에 절은 없어지고 빈 터만 남았다. 대사(大師) 회경(懷鏡)이 승선(承宣) 유석(劉碩), 소경(小卿) 이원장(李元長)과 함께 발원(發願)하여 절을 중건(重建)했는데, 회경이 친히 토목 일을 맡았다. 재목을 처음 운반할 때, 노부(老父)가 삼으로 삼은 신과 칩으로 삼은 신을 각각 한 켤레씩 주었다. 또 옛 신사(神社)에 가서 불교의 이치를 개유(開諭) 하였으므로 신사 옆 재목을 베어다가 5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또 노비들을 더 주니 매우 융성하여 동남 지방에 있어서의 이름난 절이 되었다. 사람들은 회경을 귀진의 후신(後身)이라 했다.⁸⁾

7) 『三國遺事』 郁面婢 念佛 西昇-鄉傳

8) 『三國遺事』 郁面婢 念佛 西昇-僧傳

A-3) 의론해 말한다. 고을 안의 고전(古傳)을 살펴보면, ①옥면은 바로 경덕왕 때의 일이다. ②징(徵; 필경 진珍인 듯싶다. 아래도 역시 같다)의 본전(本傳)에 의하면 이는 원화(元和) 3년 무자(戊子; 808) 애장왕(哀莊王) 때의 일이라 했다. ③ 경덕왕 이후에 혜공왕(惠恭王)·선덕왕(宣德王)·원성왕(元聖王)·소성왕(昭聖王)·애장왕(哀莊王) 등 5대까지는 도합 60여 년이나 된다. 귀징(貴徵; 珍)이 먼저이고 옥면이 뒤이기 때문에 그 선후가 향전(鄉傳)과 어긋난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실어서 의심이 없게 한다.⁹⁾

A-4) 찬(讚)해 말한다.

서쪽 이웃 옛 절에 불등(佛燈)이 밝았는데,
 방아 찼고 절에 오니 이경(二更)이네.
 한 마디 염불마다 부처가 되려하여,
 손바닥 뚫어 노끈 꿰니 그 몸도 잊었네.¹⁰⁾

A-1)-4)는 『삼국유사』의 감통편에 실려 있는 <옥면비염불서승>조이다. A-1)은 <향전>이고, A-2)는 <승전>이다. 또한 A-3)은 『삼국유사』의 편자인 일연의 의론으로, 옥면에 관한 내용이 <향전>과 <승전>에 실려 있고, 양자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A-4)는 <옥면비염불서승>의 찬인데, 그 중심내용이 옥면의 성불이다. <옥면비염불서승>조는 옥면이라는 여자노비가 염불을 통해 성불한 내용이 주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적>에는 총 5종이 있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802년의 제 2회 만일회(萬日會)에 대한 기록으로 <신창만일회사적일기(新創萬日會史蹟日記)>이다.¹¹⁾ 다음은 1882년에 지은 <금강산건봉사사적(金剛山乾鳳寺史蹟)>이고,¹²⁾ 세번째는 1904년의 <대한국간성건봉사만일회연기(大韓國杆城乾鳳寺萬日會緣起)>이다.¹³⁾ 네번째는 1906년에 지은 <대한국간성군건봉사

9) 『三國遺事』 郁面婢 念佛 西昇-議論

10) 『三國遺事』 郁面婢 念佛 西昇-讚

11)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1977, 아세아문화사, 28-31쪽

12)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1977, 아세아문화사, 30-33쪽

사적비(大韓國杆城郡乾鳳寺史蹟碑)>이고,¹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1908년에 지은 <대한국금강산건봉사제이미타회연기비(大韓國金剛山乾鳳寺第二彌陀會緣起碑)>이다.¹⁵⁾ 이중 1904년의 <대한국간성건봉사만일회연기>와 1908년의 <대한국금강산건봉사제이미타회연기비>에서만 옥면설화가 실렸다. 뿐만 아니라 <사적>에서는 발징화상에 의한 동맹결사인 만일회의 연기가 주요 내용이므로 옥면설화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다. 다음은 <사적> 중 옥면과 관련된 사료이다.

B-1) (생략) 그 후 고려조에 와서 고성현(固城縣)은 열산현(烈山縣)이 되었고, 절은 서봉사(西鳳寺)라 불렀다. 이때 강주(康州)의 아간 장자(阿干 長者)는 21인과 한마음으로 서원하여 다시 연회(蓮會)를 설하였다. 아간의 여종[婢]은 하루에 한 섬의 쌀을 찿어 자기의 일을 다하고 여가를 틈타 대웅을 따라 염불하였다. (생략) 동량(棟梁)이 연회를 베풀 때 감원(監院)이 계(戒)를 범해서 부석사의 소로 전신(轉身)하였는데, 화엄경을 실은 공덕으로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공양, 염불한 인연으로 이와 같은 보응을 얻었다고 한다. (생략)¹⁶⁾

B-2) 당 헌종 원화(元和) 3년(808)에 화주(化主) 혜숙법사가 도속(道俗) 21인과 더불어 동맹결사했다. 그 가운데 강주(康州) 아간 귀진의 여종 옥면은 매일 저녁 일경(一更)까지 쌀 두 섬을 찿고는 손바닥을 깨어 기등을 매고 주인을 따라 정진하였다. 8년만인 기미(己未) 정월 21일에 갑자기 하늘음악이 서쪽으로부터 들리더니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가득 찼다. 옥면은 크게 빛을 비추면서 들보를 뚫고 올라갔다. 그 구멍은 둥그렇게 났지만 비가 새지 않았다. 유골은 육신대(肉身臺)에 모셨다.¹⁷⁾

13)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1977, 아세아문화사, 39-41쪽

14)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1977, 아세아문화사, 42-45쪽

15)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1977, 아세아문화사, 45쪽

16) <大韓國杆城郡乾鳳寺萬日會緣起>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1904

17) <大韓國金剛山乾鳳寺第二彌陀會緣起碑>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1908

B-1) 1904년의 사적은 고려시대에 강주(康州) 아간(阿干) 장자(長者)와 아간의 여종[婢]라고만 하여 구체적인 인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아간의 여종이 하루에 한 섬의 쌀을 찢어 자기의 일을 다한 후에 여가를 틈타 대중을 따라서 염불했다는 내용과 부석사의 소가 화엄경을 실은 공덕으로 여자로 태어나고, 공양 염불한 인연으로 보응(報應)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옥면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B-2)에서는 구체적으로 아간 귀진과 그의 여종인 옥면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삼국유사』의 감통편에 실려 있는 <옥면비염불서승>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다. B 사료의 경우, 금강산건봉사의 연혁과 미타결사가 주된 내용이므로 옥면과 관련된 사항은 소략하다.

이처럼 옥면에 대한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A-1) 향전의 내용은 <옥면비염불서승>의 제목과 B-4)의 찬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옥면이 염불을 통해 서승(西昇) 즉 서방의 극락정토로 갔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반면 A-2)의 승전에서는 A-2) ③ 옥면의 일화가 ①의 옥면의 전생의 인연으로 설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2) ①의 관음보살의 현신인 팔진과 A-2) ④의 옥면이 왕성한 후에 그와 관련된 유적, 그의 주인인 아간 귀진의 업적으로 부연되었다. A-1)에서는 옥면의 고난과 극복, 염불 정진으로 인한 왕생의 성취가 주요 내용인 반면, A-2)에서는 전생의 인연으로 인한 필연성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A-2)에서 주인인 아간 귀진과 여종인 옥면과의 관계, 그로 인한 고난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반면 옥면이 왕성한 후에 아간 귀진이 법왕사(法王寺)를 창건한 것과 대사(大師) 회경(懷鏡)이 증진한 내용이 덧붙여졌다.

1904년에 씌어진 <사적>의 B-1)은 <승전>인 A-2)와 유사하다. 강주지역의 아간 장자와 그의 여종에 대한 이름은 없으나, 그 여종이 전생에 부석사의 소로서 전신(轉身)하였으나, 화엄경을 실은 공덕으로 여자로 태어났고, 보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1908년에 씌어진 <사적>의 B-2)는 A-1)의

<향전>의 내용과 유사하다. 강주 아간 귀진의 여종인 옥면이 매일 저녁 일경(一更)까지 쌀 두 섬을 찢고는 손바닥을 꿰어 기둥을 매고 주인을 따라 정진하였고, 그런지 8년 만에 옥면이 들보를 뚫고 올라가서 서승(西昇)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2)와 B-1),2)에서는 옥면의 서승(西昇), 즉 왕생을 기록한 반면, A-1)에서는 옥면이 진신(眞身)으로 변화하여 연화대에 올랐다고 하여 성불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로 볼 때 실존인물인 옥면의 일화는 구전되고 확산되었고, 이후에 미타결사의 주요 동인으로 설화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옥면설화의 내용과 구성

내용	출전	향전	승전	사적(1904)	사적(1908)	비고
	옥면의 이름		○	○		○
옥면의 전생			○	○		
옥면의 염불		○	○	○	○	
옥면의 서승	왕생		○	○	○	
	성불	○				연화대
옥면의 흔적(장소)		미타사	미타사	원각사		
관련장소			부석사 하가산 제1보리사 제2보리사 법왕사	서봉사 부석사	건봉사	

이처럼 옥면의 일화의 핵심내용은 옥면의 염불과 왕생(또는 성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옥면의 일화는 두 가지 계통으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향전> A-1)과 <사적> B-2)의 계통으로, ① 여자노비인 옥면 ② 옥면의 염불 ③ 옥면의 서승(西昇) ④ 옥면의 흔적이 주요내용이다. 두 번째는 전생의 인연이 부연되어 있는 <승전> A-2)와 <사적> B-1)과 의

계통이다. 즉 ① 계(戒)를 어겨서 축생도에 떨어져 소가 되는 벌을 받았는데, ② 부석사의 소가 되어 화엄경을 읽고 다니는 공덕을 쌓았으며, ③ 불경에 힘입어 여종으로 태어났고, ④ 염불정진하여 마침내 성불하였다는 것이다.

육면에 관한 두 계통의 전승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육면이 서승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즉 향전의 계통에서는 육면의 서승을 육면의 염불 그 자체, 즉 개인의 신심이나 노력을 부각하였다. 반면 승전의 계통에서는 육면의 서승은 <공양 + 염불>의 인연이 보응을 받은 결과이다. 육면의 서승을 ‘인(因)’ 즉 인과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육면의 서승이 정도에 왕생한 것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성불까지 한 것을 의미하는지의 여부이다. 육면이 성불한 모습은 A-1)에서만 보인다. A-1)에서 육면이 해골을 버리고, 진신(眞身) 즉 부처의 모습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붓다에게는 32대인상, 혹은 32장부상이라고 불리는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는 남성의 모습이므로, 육면 역시 남성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부처가 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¹⁸⁾ 즉 여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극락에는 여자가 없다는 경전의 내용대로 남성 붓다의 모습으로 왕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면이 성불했다는 것은 향전계통에서만 보인다. 신라에서 아미타신앙이 대중화되고, 육면이 설화화되는 과정에서 부연되었을 것이다. 이로 보아 신라에서는 여종인 육면 역시 현신성불(現身成佛)한 존재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18) 김영미, 2005 앞의 논문, 46쪽

2. 옥면설화의 역사적 배경

<옥면비염불서승>조의 주된 내용은 여자 노비인 옥면이 염불을 통해 왕생하였다는 것이다. 중심 내용은 같으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옥면비염불서승>조의 시기와 장소를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은 장소의 문제이다. 지명과 관련해서는 B-1)의 고성현(固城縣)과 B-1)과 2), A-1)의 <향전>에서 강주(康州)의 지명이 나온다. 우선 '고성'은 본래 고자군(古自郡)으로 본래 고자국으로 고자국이였다. 지금의 사천지역인 사물국과¹⁹⁾ 더불어 포상8국에 소속되었던 나라이다.²⁰⁾ 고자군이 고성으로 개명된 것은 경덕왕대이다. 소속된 현이 3곳인데, 그 중의 한 곳은 미상이고, 다른 2곳은 각각 사천(泗州)와 영선현(永善縣)으로 개명되었는데,²¹⁾ 고려 성종때 고주자사(固州刺史)가 파견되었던 곳이다.²²⁾ 즉 이에 따르면, 강주는 곧 신라 9주의 하나인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晉州)에 해당한다.

반면 A-1)의 <향전>에는 강주(康州) 외에 강주(剛州)가 세주에 기록되어 있다. 강주(剛州)일 경우, 이는 지금의 영주에 해당한다. 영주는 원래 고구려의 날이군(奈已郡)으로 신라 파사왕이 신라 영토로 편입하였고, 경덕왕이 나령군(奈靈郡)이라 고친 이후 강주(剛州)·순안(順安)·영주(榮州)·영천(榮

1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泗川縣 沿革條. “本新羅史勿縣 景德王改泗水 屬固城郡 高麗初屬晉州 顯宗改泗州 明宗置監務”

20) 『三國史記』, 신라본기, 나해왕 14년조 ; 『삼국유사』 권5, 제8 피은, 물계자

21) 『三國史記』 권34, 地理志, 固城郡條. “本古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蚊火良縣 今未詳 泗水縣 本史勿縣 景德王改名 今泗州 尙善縣 本一善縣 景德王改名 今永善縣”

2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 固城縣 沿革條 “本加耶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改今名 高麗成宗時 爲固州刺史 後降爲縣 顯宗屬巨濟 後置縣令 元宗陞爲州 忠烈王時 併于南海 尋復舊 恭愍王朝 降爲縣令 本朝因之”

川)·구성(龜城) 등으로 지명이 변천되었다.²³⁾

우선 고려해볼 점은 B-1)과 2)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건봉사의 미타결사와 관련된 사료라는 점이다. 현재 진주지역에 해당하는 강주(康州)의 고성(固城)과는 다른 지역이다. 고성현은 본래 고구려의 하슬라지역이었고, 경덕왕 16년(757)에 명주로 개명된 곳으로²⁴⁾ 지금의 강원도 강릉지역을 일컫는다. 고려시대에 열산현(烈山縣)으로 개명되었고, 별호(別號)는 봉산(鳳山)이라고 하였다.²⁵⁾ B-1)의 고성현은 현재 건봉사가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치비정과 관련하여 사료에 나온 그 외의 장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1)에서는 강주(康州 또는 剛州), 미타사(彌陀寺)의 두 곳이 나온다. 반면 A-2)에서는 강주(康州)의 지명이 보이지 않는다. 부석사(浮石寺), 하가산(下柯山), 혜숙법사(惠宿法師)가 세운 미타사(彌陀寺), 소백산(小伯山)의 제1보리사(菩提寺)와 제2보리사(菩提寺), 동남지방의 이름 있는 절이 된 법왕사(法王寺)가 나오는 데, 이들 지역은 영주지역 즉 강주(剛州)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특히 법왕사의 경우 동남지방의 유명사찰이라고 하여 옥면과 관련된 지역이 영주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다만 부석사는 옥면의 전생과 관련된 사찰이고, 소백산, 하가산, 보리사, 법왕사 등은 옥면의 왕생과 그 이후와 관련된 장소이다. 옥면의 왕생이 설화가 된 이후에 부연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실존한 옥면과 관련된 장소는 A-1)과 2)에서 모두 미타사(彌陀寺) 한 곳이다.

미타사는 A-1)에서는 아간 귀진이 계(戒)를 한 장소라고 하였고, A-2)에서는 미타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간 귀진의 집이 있었다고 하였다. 미타사를 세운 혜숙법사는 진평왕대의 고승으로, 신라 10성(聖) 중의 한명이

2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5, 榮川郡 建置沿革條

24) 『三國史記』 권35, 잡지4, 지리2, 신라 溟州

25) 『高麗史』 권58, 지 권제12, 지리3, 열산현

다.²⁶⁾ 혜숙법사는 안강현(安康縣)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안강현은 원래 신라의 비화현(比火縣)으로, 경덕왕때 안강현으로 개명하였다. 파사왕때에 병합한 음즙벌국이 안강현으로²⁷⁾ 지금의 경주시 안강읍에 해당한다.²⁸⁾ 진평왕대 혜숙법사가 세운 미타사의 위치가 강주(康州)가 아닌 강주(剛州), 즉 영주지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적>인 B-2)에서 혜숙법사가 도속(道俗) 21인과 더불어 동맹결사를 하였고, 이에 옥면이 참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혜숙법사는 진평왕대, 옥면은 중대 이후의 사람이므로, B-2)의 기록은 미타사로 인한 오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옥면과 관련된 사적이 강주(康州)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주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로 볼 때 옥면은 영주의 미타사에서 수행을 하였고, 이후에 옥면의 일화가 염불결사에 의해 공간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지역명의 혼용이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옥면설화의 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사적>인 B-1)의 고려조, B-2)에서 결사가 시작된 시점인 당 현종 원화(元和) 3년(808)과 옥면이 왕생한 시점인 8년만인 기미(己未) 정월 21일이다. 다음으로 A-1)의 향전에서는 경덕왕대라고 하였고, A-2)의 승전에서는 옥면이 왕생한 시점인 염불정진한지 9년, 을미년(乙未年) 정월 21일이 나온다. 그 외에 승전의 주인공인 팔진(八珍)의 생존연대 등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삼국유사의 편자인 일연 역시 시기상의 혼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A-3) ①에서 옥면은 바로 경덕왕 때의 일이라고 한 기록과 A-3) ②에서 징(徵, 또는 진(珍))의 본전(本傳)에 의하면 이는 원화(元和) 3년 무자(戊子 ; 808) 애장

26) 『三國遺事』 권4, 義解, 二惠同塵

27) 『三國史記』 권34, 雜誌, 地理1 ; 『高麗史』 권57, 志11, 地理2, 경상도 동경유수관 경주 안강현

28) 이형우, 2000 『신라초기국가형성사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78~79쪽

29) <향전>의 康州는 剛州의 오기로, 미타사는 현재 영주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최성렬, 1981 앞의 논문, 151~156쪽).

왕때의 일이라 했다는 기록을 싣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A-3) ③에서 경덕왕 이후에 애장왕까지는 도합 60여 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승전>의 주인공인 징이 애장왕대의 인물인데, 옥면이 경덕왕대의 인물이라는 것은 그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원화3년은 808년으로 애장왕 9년이고, 이후 을미년은 8년 후인 815년, 헌덕왕 7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경덕왕대에 옥면이 성불하였고, 후대에 발징화상의 전기와 《건봉사사적》이 기록되면서 발징화상과 건봉사의 뛰어남을 강조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존재했던 옥면의 일을 첨부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³⁰⁾ 또한 경덕왕대에 만일염불결사가 시작되었고, 이후에 남부지역인 진주 및 북부지역인 영주 등에 폭넓게 퍼졌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하였다. 즉 향전을 995~1018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보고, 여기서 발징(팔진)과 옥면비염불서승 설화까지도 조합한 것으로도 파악하였다.³¹⁾ 반면 팔진(경덕왕대)과 옥면(애장왕대)의 염불을 전후 두 사건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³²⁾

A-2)의 을미년(乙未年)을 주목하면, 경덕왕대로 볼 경우, 경덕왕 14년(755)이고, 애장왕대 이후로 볼 경우, 《징본전(徵本傳)》의 을미년은 헌덕왕 7년(815)이다. <사적>인 B-2)에서 당 헌종 원화 3년(808)과 8년만인 기미 정월 21일이라는 기록에서 8년 후인 기미 정월 21일은 A-2)의 <승전>의 9년 후인 을미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을미년은 경덕왕 14년(755)과 헌덕왕 7년(815)에 해당하고, 옥면의 설화가 이 두 시기에 연관되

30) 김영미, 1994 「신라 사회의 변동과 아미타신앙」 『신라불교사상사연구』, 민족사, 128~129쪽

31) 韓普光은 향전, 승전, 징본전을 각각 그대로 인정하고, 설화의 특성 상 후대로 갈수록 정확한 시간, 장소, 등장인물, 유적 등을 통해 구체화시켜간다는 점을 주목하였다(1994 「신라·고려대의 만일염불결사」 『佛敎學報』31 ; 2000 『信仰結社研究』, 如來藏 재수록, 135~144쪽)

32) 신종원, 1988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 역주」 『신라문화』 5, 188쪽

어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8년부터 815년간의 기간이 7년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르면 경덕왕 7년(748)에 옥면이 염불정진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강산건봉사사적>에서 전하는 만일결사 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적>에서는 발징화상의 만일회가 만일결사의 시초였음을 전하고 있다. 다만 1882년에 지어진 <금강산건봉사사적>과 1906년에 지은 <대한국강원도 금강산 간성군건봉사사적비>에서는 경덕왕 17년(758)에 발징이 만일연회를 열었는데, 29년만인 병인년(786)에 만일(萬日)이 다 찼다고 하였다. 또한 B-1)의 1904년에 지은 <대한국간성건봉사만일연회연기>에서는 발징이 748년에 시작하여 29년만인 776년에 마쳤다고 하였다. 반면 B-2)의 1908년에 지은 <대한제국 금강산건봉사 제이 미타회연기비>에서는 원화 3년(808)에 혜숙법사가 동맹결사를 했고, 8년만인 815년에 옥면이 들보를 뚫고 올라갔다고 하였다. B-2)를 제외한 4개의 <사적>에서 모두 경덕왕대 승려인 발징화상이 만일회를 열은 것이 건봉사만일결사의 시초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만일회를 연 최초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견해가 748년과 758년으로 나뉜다. 이로 볼 때 건봉사의 만일결사 및 옥면과 관련된 시기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삼국유사> 향전의 경덕왕대와 <사적>에서의 748~776년, 또는 758~786년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유사> 승전의 애장왕대와 <사적>에서의 808~815년이다.

우선 옥면이 염불했던 시기에 대해 살펴보자. 신종원은 옥면의 염불기간이 승전과 <사적>의 808(애장왕 9년)~815년(헌덕왕 7년)인 것으로 보았다.³³⁾ 즉 1차결사가 경덕왕대 발징에 의해 강원도 고성군 원각사에서 열렸고, 2차결사가 애장왕대 귀진을 중심으로 미타사에서 열렸는데, 2차 결사에 옥면이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³⁴⁾ 반면 최성렬은 향전의 경

33) 신종원, 2009 앞의 논문, 102쪽

34) 신종원, 2009 앞의 논문, 109~110쪽

덕왕대와 <승전>의 을미(815)에 옥면이 서승한 기록을 취신하고, 원화 3년 무자(808)를 잘못된 기록으로 보았다. 이에 옥면이 을미년에 서승(西昇)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을미는 경덕왕 14년이자 당 현종 14년인 755년의 을미로 파악하였다. 또한 옥면이 염불한 지 9년만에 서승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염불을 시작한 시기는 경덕왕 6년, 당 현종 천보 6년인 747년으로 이라고 하여, 향전과 승전 모두 경덕왕대 사실로 파악하였다.³⁵⁾ 이로 볼 때 옥면은 경덕왕대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만일결사 개최 시기를 알아보려고 한다. A-2)의 승전에서서의 팔진과 <사적>의 발징화상이 동일인물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승전에서는 애장왕대(元和 3년, 808년) 일이라고 하였고, <사적>에서는 발징화상이 경덕왕 17년(758), 또는 경덕왕 7년(748)에 만일결사를 최초로 열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발징화상이 염불결사를 시작한 시기는 <사적>에서 748년, 또는 758년으로 전해지는데, 748년은 앞서 옥면이 경덕왕대에 염불정진을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옥면이 참여한 염불결사는 748년에 개최되었을 것이다.

또한 옥면의 왕생에 관해서는 경덕왕 14년(755)과 헌덕왕 7년(815)의 두 시기가 전해지는데 모두 을미년이다. 이와 관련하여 옥면의 왕생과 미타결사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옥면이 왕생한 계기는 염불수행이고, 염불수행을 하였던 장소는 미타사이며, 시점은 을미년이었다. 또한 옥면의 왕생은 염불을 통해 왕생을 염원하는 결사체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옥면은 주인인 아간 귀진을 따라 절에 가서 염불을 하였다. A-1)의 향전에 남자신도들이 결성한 계(契)에 옥면의 주인이 아간 귀진이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타사에서 결성된 계로, 염불을 주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아 염불수행을 통한 성불이 목적인 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적>에서 전하는 경덕왕대 승려인 발징이 열었던 염불결사인 만일회의 목적과 일치한다.

이로 볼 때 옥면설화는 염불결사의 주요 동인으로써 공간적으로 확산되

35) 최성렬, 1981 앞의 논문, 150~151쪽

고, 시간적으로 계기적 사건으로써 재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덕왕대에 남자신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염불결사가 결성되었는데, 옥면이 이 결사에 참여하여 염불수행을 하였고, 왕생을 하였다. 옥면의 일화는 그의 주인인 아간 귀진과 그가 속한 염불결사를 결속시키는 주요계기가 되었고, 이후의 염불결사에도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옥면이 왕생을 한 시기인 을미년을 기점으로 경덕왕대에 이어 헌덕왕대에도 옥면설화가 동인이 된 염불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옥면설화와 염불결사는 영주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확산되었고, 그에 따른 구체적 사실들이 부가되었다. 이처럼 옥면설화는 시·공간적으로 재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설화화되었던 것이다.

3. '여인왕생' 인식과 옥면설화의 의미

성불의 방법과 자격은 중요한 화두였다. 특히 성불의 자격과 관련하여 여성도 성불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인도의 부파불교와 초기 대승불교 시대에는 여성이 성불할 수 없다는 여성불성불론(女性不成佛論), 즉 여성성불불가론(女性成佛不可論)이 교단을 지배하였다. 특히 부파불교의 '삼종설(三從設)'과 '여인오장설(女人五障設)'은 여성이 성불할 수 없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다. 반면 대승불교는 여래장(如來藏)사상을 통해 평등을 설파하며 등장하였다. 즉 출가와 재가, 남성과 여성, 특정 계급에 구애됨 없이 자리아타(自利利他)적인 보살행을 통해 보살이 될 수 있음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에서도 여성성불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부처가 계시는 나라인 불국토에는 여성의 몸, 즉 여신(女身)이 없다는 것이다.

대승불교는 기존의 부파불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대승불교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여성성불론이 필요했고,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등장한 것이

여성변성남자성불론(女性變成男子成佛論)이었다.³⁶⁾ <법화경>에서는 여인으로 장설을 근거로 여성의 성불을 부정하는 사리불을 설득하기 위해 용왕의 딸인 용녀가 성불한 내용이 나온다. 여성성불변성론은 법화경과 무량수경의 35원과 대아미타경 2원에서도 보인다. 다음은 ‘여인왕생’과 관련된 사료이다.

C-1) 또한 여자의 몸은 다섯 가지 장애가 있으니 그 첫째는 범천왕(梵天王)이 될 수 없는 것이요, 둘째는 제석(帝釋)이며, 셋째는 마왕(魔王)이고, 넷째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요, 다섯째는 불신(佛身)이니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중략) 당시의 대중 모두 용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성남자(變姓男子)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무구세계로 가서 보배로운 연화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고, 32상 80종호와 두루 사방의 일체 중생을 위해서 묘법(妙法)을 연설하는 것을 보았다.³⁷⁾

C-2) 만약 제가 부처가 되더라도 시방의 한량없이 많은 불가사의한 제불세계에 여인이 있어 저의 이름을 듣고 기뻐하여 믿고 즐거워하여 보리심을 발한 사람이 여인의 몸을 받기 싫어하는 데도 목숨이 다한 후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는다면 정각을 얻지 않겠습니다.³⁸⁾

36) 中村元, 1993 『원시불교 그 사상과 생활』, 동문선, 236쪽; 이현옥, 2003 앞의 논문, 273~274쪽; 구자상, 2010 앞의 책, 210~214쪽

37) 妙法蓮華經 提婆達多品 제12

時舍利弗語龍女言：「汝謂不久得無上道，是事難信。所以者何？女身垢穢，非是法器，云何能得無上菩提。佛道懸曠，經無量劫勤苦積行，具修諸度，然後乃成。又女人身猶有五障：一者、不得作梵天王，二者、帝釋，三者、魔王，四者、轉輪聖王，五者、佛身。云何女身速得成佛？」(중략)

當時衆會，皆見龍女忽然之間變成男子，具菩薩行，即往南方無垢世界，坐寶蓮華，成等正覺，三十二相、八十種好，普爲十方一切衆生演說妙法。

爾時娑婆世界，菩薩、聲聞、天龍八部、人與非人，皆遙見彼龍女成佛，普爲時會人天說法，心大歡喜，悉遙敬禮。無量衆生，聞法解悟，得不退轉；無量衆生，得受道記。無垢世界，六反震動；娑婆世界，三千衆生住不退地，三千衆生發菩提心而得受記。智積菩薩及舍利弗，一切衆會，默然信受。(『大正藏』9, p35c6~19)

C-3) 두 번째 원(願)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국토에는 부녀(婦女)가 없고, 수많은 세계의 제천과 인민이 없을 것입니다.³⁹⁾

C-1)은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의 제비달다품이고, C-2)는 무량수경의 제 48대원 중 35원이다. C-3)은 대아미타경의 24원 중 2원이다. C-1)은 용녀가 변성남자하여 성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2)에서는 여인의 성불에 관한 내용으로, 여신(女身) 즉 여성의 몸으로는 정각(正覺)을 취하지 않겠다는 원(願)이다. 이는 여성의 변성성불 즉 변성남자하여 성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C-3)은 불국토안에 태어나려는 여인은 모두 남자가 되길 원하는 원으로 역시 여성의 변성성불을 담고 있다. C-1)의 법화경에서 여성의 몸으로 성불할 수 없는 이유로, 여신(女身)의 다섯 가지 장애를 들고 있다. C-2)에서는 여인의 몸으로는 정각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C-3)에서는 불국토에 부녀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제비달다품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묘법연화경』에 삽입된 것이다.⁴⁰⁾ C-1)의 제비달다품에서의 오장설은 제비달다교단의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⁴¹⁾ 이를 법화경의 근본교설로 보기는 어렵다.⁴²⁾ C-1)의 사리불과 용녀의 논쟁을 통해 오장설을 부인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2)와 3)은 부처님이 성불하기 이전에 보살로 계실 때 세운 서원, 즉 본원(本願)이다. C-3)에

38) 佛說無量壽經 제1권, 『『設我得佛, 十方無量不可思議諸佛世界, 其有女人聞我名字, 歡喜信樂, 發菩提心, 厭惡女身, 壽終之後復爲女像者, 不取正覺』(『大正藏』 12, p268c21)

39) 大阿彌陀經, 제2원

『『第二願, 我作佛時, 我刹中無婦女; 無央數世界諸天人, 以至蜎飛蠕動之類, 來生我刹者, 皆於七寶水池蓮華中化生. 不得是願終不作佛.』(『大正藏』 12, p328c13~16)

40) 塚本啓祥, 1986 『法華經の成立と背景』, 佼成出版社, 462-464쪽

41) 岩本 裕, 1980 『佛教と女性』, 第三文明社, 80쪽

42) 이창숙, 2015 앞의 책, 153~159쪽

서 불국도에 부녀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여자라는 상이 없다는 의미로, 즉 남녀차별이 떠난 세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³⁾ ‘여성성불’이란 여성의 몸, 즉 여신(女身)으로서 성불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 구분이 없는 불국도, 부처가 계신 곳이라는 이상향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불과 왕생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인왕생과 관련하여 불국도에 여성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와 여인의 몸으로 정토왕생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논란이 된다. 불국도를 성별의 구분이 없는 곳으로 이해할 경우, 정토에는 여인이나 불구자가 없다는 것은 여인은 왕생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토에 나는 순간 아미타불의 본원에 섭수되어 청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여인이나 불구자가 아니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⁴⁴⁾ 그런데 신라 중대의 승려인 경홍이 쓴 『무량수경』의 주석서인 『무량수경연의술문찬(無量壽經連義述文贊)』에서는 정토에 여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아미타불의 정토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첫째, 부처님의 어머니처럼 변화신으로 존재하는 경우, 둘째 『법화경』의 용녀가 이 세계에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기는

43) 전해주, 1986 「변성성불론의 비판적 검토」 『불교사상』 27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편, 1993 『불교의 여성론』, 불교시대사 재수록, 68~79쪽

44) 여인이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世親의 『往生論』과 天台智者의 『淨土十疑論』이다. 전자에서는 “여인이나 신체가 불구인자, 이승의 종성은 태어나지 못한다”(『大正藏』 26, p231)이라고 한 반면에 후자는 이를 “다만 이곳의 여인, 장님, 병어리, 귀머거리 등도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원하면 모두 정토에 왕생하여 다시는 여인이나 불구자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大正藏』 47, p80)로 답하였다. 원효도 『無量壽經宗要』(『大正藏』 37, p126)에서 “또 ‘여자와 불구자는 저곳에 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저곳에 태어날 때에 누구나 여자가 아니고 불구자가 아닌 몸을 받게 됨을 뜻하고, 이 세상 여자들이 그곳에 가서 태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니, 저 위제희 부인이 왕생한 일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여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현승, 2013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운주사, 182~190쪽).

하지만, 수행 후 타방정토에 왕생하여 등정각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수행의 과보로 왕생하여 여인의 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⁴⁵⁾

이로 볼 때 여인의 몸이지만 수행을 통해 왕생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더 이상 성의 구별이나 장애가 없는 정토에서의 성불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수행을 통한 왕생, 장애와 성의 구별이 없는 정토로 이해한다면, 여성성불이 아닌 여인왕생의 개념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신라에는 여성으로 성불을 염원한 사례가 있다. 선덕여왕의 선덕(善德)이라는 왕명은 선덕바라문(善德婆羅門)에서 취한 것이고, 선덕의 이름인 덕만(德曼)은 <열반경>의 덕만우바이에서 취한 것으로 여겨진다.⁴⁶⁾ 또한 진덕여왕의 이름인 승만은 <승만경>에서 유래한 것이다.⁴⁷⁾ 그런데 이들 여왕이 모두 제석(帝釋)이 될 원을 세웠다는 점이 주목된다. 선덕여왕은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兜利天)에 묻어달라고 하였는데,⁴⁸⁾ 이 도리천의 제왕은 제석이었다. 또한 <승만경>의 승만장에는 부처님과 제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즉 세존이 제석에게 “너는 마땅히 이 경을 수지독송하라”라고 당부하였다.⁴⁹⁾ 이로 볼 때 선덕여왕은 현세에는 여성의 몸이지만, 내세에는 도리천에 문힘으로써 제석이 되고자 하였다. 선덕여왕이 C-1) 법화경에서의 ‘변성성불’에 의한 성불을 염원하였던 것이다.⁵⁰⁾ 진덕여왕 역시 <승만경>을 수지독송함으로써 제석이 되고자 원을 세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덕여왕은 그의 유언을 따라 도리천에 묻혔기 때문에 내세에 제석이 되었을 것으로

45) 김양순, 2009 「懺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125쪽

46) 남동신, 1995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4~26쪽

47) 조경철, 2009 앞의 논문, 134쪽

48) 『삼국유사』 권1, 기이 선덕왕지기삼사

49) 『大正藏』 12권, 223 상

50) 조경철, 2009 앞의 논문, 131~136쪽

여겨졌고, 이는 진덕여왕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여성의 몸이 물리적으로 죽은 이후에 내세에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육면 역시 여성의 몸을 버린 이후에야 왕생할 수 있었다. 육면은 곧 A-1)에서 해골을 버리고, A-2)에서 신발과 육신을 버림으로써 흔적을 남겼다. 육면설화를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여, 육면이 손을 노끈에 꿰어 좌우로 흔들며 염불한 것은 처형의 한 방법이었고, 몸을 버렸다는 것은 육면의 죽음을 의미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⁵¹⁾ 이처럼 A-1)과 2)에서 육면이 육체를 버렸다는 것은 물리적 죽음을 의미한다. 육면의 왕생 역시 여성의 육신을 버린 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신라에는 이미 여성의 성불에 관한 경전과 논의가 알려져 있었다. 중고기에는 여성성불이 특별히 선택받은 성골여성, 여왕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육면은 계집종이었다.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비였다. 중고기의 여왕은 성불을 염원하였던 반면에 중대의 계집종인 육면은 서방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하였고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대에는 여인왕생의 개념이 실천방법인 염불이 제시되면서 구체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신분적 범주 역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육면설화의 중심장소는 미타사로, 주불은 아미타불이었다. 아미타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이상 생사윤회(生死輪回)하지 않고,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수행자가 성불하여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아미타신앙의 경전의 주요 내용은 일심(一心)으로 아미타불을 염(念)하고, 계행(戒行)을 지키면 아미타불을 볼 수 있고, 또 아미타불의 정토(淨土)에 왕생(往生)한다는 것으로 정토수행의 기본요건은 신(信), 원(願), 행(行)이다.⁵²⁾ 신(信)이란 아미타불(阿彌陀佛)과 극락정토(極樂淨土)의 실존

51) 신종원, 2009 앞의 논문, 111~113쪽

52) 염불수행을 통해 아미타정토신앙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정토교의 根本所依는 이른바 淨土三部經이라고 일컫는 『阿彌陀經』과 『無量壽經』, 『觀無量壽經』이다.

을 믿는 것이고, 원(願)은 그곳에 가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이며, 행(行)은 염불수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신, 원, 행은 삼자량으로,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구비되어야 성불할 수가 있다.⁵³⁾ 옥면은 아미타불과 극락정토를 믿었고, 가겠다는 원을 세웠으며,⁵⁴⁾ 염불수행을 실천하였으므로 서방정토에 갈 수 있었다. 옥면은 신, 원, 행을 모두 갖추었기에 왕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옥면설화에서 성불의 강조 지점이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A-1)의 <향전>에서는 성불의 방법, 즉 염불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A-2)의 <승전>에서는 선근공덕으로 인한 성불의 수기, 즉 인과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염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는 것으로 소리 내어 부르거나 상호를 관상하거나 실상을 관함으로써 부처를 보고 부처를 이루며 불국토에 가게 하는 수행법이다. 염불은 불보살의 본

아미타경은 釋尊이 祇園精舍에서 제자들을 모아 教說을 한 것으로, 아미타불과 그 국토인 극락세계에 대해 말하고, 아미타불의 名號를 부르면, 극락세계에 往生한다고 하였다. 무량수경은 아미타불의 전신인 法藏比丘의 48願 成就와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또 부처의 큰 威神力인 大慈大悲를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稱名하면, 깨달음을 얻어 정토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관무량수경은 布施, 戒律, 실천의 淨業을 닦는 것과 '나무아미타불'을 稱念하면 十念이 具足되고 이로 인해 정토왕생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稱名正因'을 강조한다(류용범, 2010 「阿彌陀淨土 念佛往生에 대한 研究」, 위덕대학교석사학위논문, 13~16쪽).

- 53) 지산, 회암 공저, 2001 『한국불교정토종 법맥과 정토사상』, 무한, 150~151쪽
 54) 本願은 總願과 別願이 있는데, 總願은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本願. 成佛의 서원이고, 別願은 부처님마다 중생제도의 인연에 따라 세우신 願으로, 아미타불의 48원이나 약사여래의 12대원이 그에 해당한다. 48대원은 아미타불이 성불하기 이전인 범장비구일 때, 世自在王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만약 저의 국토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게 서원한 것이다(류용범, 2010 앞의 논문, 30~31쪽).

원력에 의지하므로 타력신앙이라고 생각되지만, 스스로 염불수행을 실행하는 자력이 없는 타력은 결코 있을 수 없으므로 자력과 타력이 동시에 갖추어지는 수행이다.⁵⁵⁾ A-1)의 향전에서의 주체는 옥면이다. 옥면은 자력으로 구원을 성취하였던 것이다.

또한 옥면의 왕생은 실질적인 증거를 남겼다. 옥면이 왕성한 증거는 옥면의 몸이 솟구쳐 올라가면서 뚫린 대들보의 구멍과 그가 남긴 신 등 구체적이다. 옥면이 남긴 흔적은 그가 생존하였다는 증거가 되었다. 신라인은 옥면의 신심을 사찰의 건립으로 기억하고, 설화로 확산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옥면의 신심이 설화로 기억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중대에 미타신앙과 결합하였던 관음신앙이 주목된다. 다음은 관련 사료이다.

D-1) 그 소나무 아래 벗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원효법사가 절에 이르니 관음의 자리 아래에 이전에 본 벗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그제야 앞에서 만난 성스러운 여인이 진신(眞身)임을 알았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고 불렀다.⁵⁶⁾

D-2) 문무왕대 사문 광덕과 엄장 두 사람이 서로 친하여 밤낮으로 약속하되 먼저 안양(安養)으로 가는 자는 서로 알리자고 하였다. (중략) 일을 마치자 곧 부인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죽었으니 함께 사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니 부인이 “좋다”고 하여 드디어 머물렀다. 밤에 장차 잘 때 통정하고자 하니 부인이 부끄러워하면서 말하였다. “법사가 정토를 구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장이 놀라고 이상하여 물어 말하였다. “광덕은 이미 하였는데 나 또한 어찌 꺼리겠는가.” 부인은 말하였다. “남편과 나는 10여 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 하룻밤도 같은 침상에서 자지 않았는데 하물며 부정하게 닿아서 더럽혔겠습니까. 다만 매일 밤 단정한 몸으로 바르게 앉아 한 소리로 아미타불만 염불

55) 류용범, 2010 앞의 논문, 48~49쪽

56) 『삼국유사』 권3 탑상4 낙산이대성 관음정취조신

하였고, 혹은 16관을 만들고 관이 이미 무르익어 밝은 달이 문으로 들어 오면 이때 그 빛 위에 올라 그 위에서 가부좌를 하였습니니다. 정성을 다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비록 서방으로 가지 않고자 하더라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릇 천리를 가는 자는 한 걸음으로 가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법사의 관은 동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쪽은 곧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엄장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물러나왔다. 곧 원효법사(元曉法師)가 거처하는 곳으로 나아가 진요(津要)를 간절히 구하였다. 원효는 삼관법(三觀法)을 만들어 그를 가르쳤다. 엄장은 이에 몸을 깨끗이 하고 잘못을 뉘우쳤고 한뜻으로 관을 닦았으니 또한 서방정도에 오를 수 있었다. 삼관(三觀)은 원효법사의 본전과 《해동승전》속에 있다. 그 부인은 곧 분황사의 종이니 대개 십구응신(十九應身)의 하나였다.⁵⁷⁾

- D-3) 노힐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불[彌勒]을 구했고 달달박박은 아미타불[彌陀]을 예배하고 염송하였다. 3년이 채 못된 경룡(景龍)3년 기유(己酉) 4월 8일, 즉 성덕왕(聖德王) 즉위 8년이였다. 날이 저물 무렵에 나이 스무 살쯤 된 아름다운 자태를 한 남자가 난초의 향기와 사향을 풍기면서 뜻 밖에 북암(北庵)에 와서 목기를 청하면서 글을 지어 바쳤다. (중략) 부득스님이 게를 들고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곳은 부녀자가 더럽힐 곳이 아니오. 그러나 중생을 수순(隨順)함도 역시 보살행(菩薩行)의 하나인데, 하물며 궁벽한 산 골에 밤이 어두우니 어찌 홀대할 수야 있겠소?”라고 하고, 이에 그를 맞아 읊하고 암자 안에 있도록 하였다. 밤이 되자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조를 가다듬어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염송에만 전념하였다. 밤이 이슬 하여 남자가 [부득을] 불러 말하기를, “제가 불행히도 마침 해산기가 있으니 화상께서는 짚자리를 좀 깔아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부득은 불쌍히 여겨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은은히 밝히니 남자는 벌써 해산하고 또 다시 목욕할 것을 청하였다. 노힐의 마음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였다. 그러나 불쌍한 생각이 더욱 더해져 또 통을 준비하여 [그] 속에 남자를 앉히고 물을 데워 목욕을 시켰다. 조금 있다가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강렬하게 서고 물이 금빛으로 변하였다. 노힐이 깜짝 놀라자, 남자가 말하기를, “우리 스님께서도 여기에서 목욕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노힐이 마지

57) 『삼국유사』 권5, 감동7, 광덕엄장

못해 그 말대로 좇았더니, 홀연히 정신이 상쾌해지는 것을 깨닫고 살갓이 금빛으로 변하였다. 그 옆을 보니 문득 하나의 연화대가 생겼다. 남자는 그에게 앉기를 권가 통 말하기를, “나는 관음보살(觀音菩薩)인데 [이곳에] 와서 대사(大師)가 대보리(大菩提)를 성취하도록 도운 것입니다”고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박박은 노힐이 오늘밤에 틀림없이 계를 더럽혔을 것이니, 그를 비웃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르러 보니 노힐은 연화대에 앉아 미륵존상(彌勒尊像)이 되어 광명을 발하고 [그] 몸은 금빛으로 단장되어 있어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려 예를 드리면서 말하기를, “어찌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니, 노힐이 그 연유를 자세히 말하였다. 박박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업장(孽)이 무거워서 다행히 대성을 만나고도 도리어 만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대덕은 지극히 인자하여 나보다 먼저 뜻을 이루었으니, 원컨대 옛날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일을 모름지기 함께 하면 합니다”고 하였다. 노힐이 말하기를, “통에 남은 물이 있으니 목욕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박박이 또 목욕했더니 역시 앞서처럼 무량수(無量壽)를 이루어 두 존상이 엄연히 상대하였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투어 와서 우러러보고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드물고 드문 일이다”고 하니, 두 성인이 [그들을] 위하여 법요(法要)를 설해주고 온 몸으로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천보(天寶) 14년 을미(乙未, 755년)에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즉위하여 이 일을 듣고 정유년(丁酉歲, 757년)에 사자를 보내 대가람을 창건하고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라고 하였다. 광덕(廣德) 2년 갑진(甲辰) 7월 15일(764년)에 절이 완성되었다. 다시 미륵존상을 조성하여 금당에 봉안하고 편액을 현신성도(現身成道) 미륵지전(彌勒之殿)이라고 하였다. 또 아미타불상을 조성하여 강당에 봉안했는데, 남은 물이 모자라 [몸에] 두루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미타상에는 역시 얼룩진 흔적이 있다. [그] 편액은 현신성도 무량수전(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고 하였다.⁵⁸⁾

D 사료는 관음신앙과 관련된 사료이다. 관음신앙은 관음보살의 발현과

58) 『삼국유사』 권3, 탑상4,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신앙의 목적에 따라 현세이익적 신앙, 수행성취 신앙, 진신상주 신앙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D-1)은 관음을 친견하지 못한 일화이고, D-2)와 3)은 수행을 통해 성불을 한 일화이다. 즉 D-1)은 진신상주 신앙이고, D-2)와 3)은 수행성취 신앙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⁵⁹⁾ D 사료를 통해 관음신앙이 미타신앙과 접합되어 가는 양상과⁶⁰⁾ 아울러 하층민에게까지 미타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¹⁾ 특히 D-2)와 3)은 정토왕생에 관한 일화이다. D-2)에서는 죽은 후에 왕생을 한 반면에 D-3)은 현신(現身)으로 왕생하였다.⁶²⁾

이들 D 사료에서 관음보살이 응신한 형태가 여성의 몸[女身]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D-1)은 원효가 관음을 친견하러 가는 길에 흰옷을 입은 벼베는 여인, 월백수를 빨던 여인과 희롱했는데, 이들이 관음진신이 응현한 존재였음을 깨닫는 내용이다. D-2)에서 광덕과 엄장은 성불한다. 광덕이 먼저 성불하였고, 엄장은 원효에게 삼관법(鉢觀法)을 배운 후에 성불할 수 있었다. 엄장을 깨닫게 한 이가 분황사의 종이었던 광덕의 아내인데, 이 역시 관음보살이 응신한 것이었다. D-3)에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역시 응신한 관음보살로 인해 성불할 수 있었다.

특히 D-2)의 광덕의 부인은 관음보살의 응신(應身)이었다. 《법화경(法華經)》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에 따르면, 관음보살이 세상을 교화함에 중생의 근기(根器)에 맞추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응신(應身)이라고 한다. 중고기에 수용된 법화경은 중대 이후에 고승들의 예참과

59) 라정숙, 2009 「삼국유사를 통해 본 신라와 고려의 관음신앙」 『역사와 현실』 71, 159~167쪽

60) 라정숙, 2009 앞의 논문, 162~167쪽

61) 박미선, 2010 「의상과 원효의 관음신앙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60, 220~221쪽

62)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부처가 되어 타방국토로 간 것이 아니라 신라에서 法身化한 것으로 신라를 불국토로 이룩하려는 신라 특유의 現身成佛觀으로 이해하기도 한다(金煥泰, 1984 「新羅佛敎의 現身成佛觀」 『新羅文化』 1, 110~111쪽).

경전독송을 통해 일반인의 교화에 널리 이용되었다.⁶³⁾ 광덕의 부인은 33응신 중 19응신의 하나인 거사부여성(居士婦女身)에 해당한다.⁶⁴⁾ D-2)와 3)에서 관음보살은 미타정토의 구현을 위한 내세로의 내영자(來迎者)로서의 관음보다 수행의 매개자로서 즉 대승보살도를 실천하여 성불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D 사료의 관음신앙의 배경은 7세기 이후의 중대이다.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은 신라 사회에 정치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중대에 아미타신앙이 정착하게 된 계기는 신라는 수당과 교류가 빈번하였던 시기에 중국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아미타신앙이었다는 점과⁶⁵⁾ 전쟁으로 인해 많은 죽음을 겪은 신라인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는 점이었다. 아미타 신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미타불의 임종래영(臨終來迎)으로 편안하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는 국가를 위하여 전쟁에 동원되어야 했던 신라인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닌 것이었다.⁶⁶⁾ 신라 중대의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의 결합은 여성이자 노비였던 육면이 왕생하고, 그 일화가 재생산되면서 설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대 사회에서 계집종이었던 육면의 왕생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

63) 박광연, 2010 「통일신라의 법화신앙과 불교문화」 『한국사연구』 150, 94~100쪽

64) 이범교, 200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하, 민족사, 436쪽

65) 김영미, 1985 「統一新羅時代 阿彌陀信仰의 歷史的 性格」 『한국사연구』 50·51, 42~43쪽

66) 경덕왕 16년 이후에 미륵신앙이 대두되기 전까지 중대를 대표하는 신앙은 아미타 신앙이었다(김영미, 1985 앞의 논문, 42~44쪽).

맺음말

육면의 죽음은 극락정도에 왕생한 것으로 미화되었고, 육면의 일화는 설화가 되었다. 본 고에서는 육면의 일화가 설화화되는 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것이 신라사회에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육면설화는 두 가지 계통으로 전해졌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계통은 ① 여자노비인 육면 ② 육면의 염불 ③ 육면의 西昇(서승) ④ 육면의 흔적이 주요내용이다. 두 번째 계통은 전생의 인연이 부연되어 있어 있다. 즉 ① 戒(계)를 어겨서 축생도에 떨어져 소가 되는 벌을 받았는데, ② 부석사의 소가 되어 화엄경을 읽고 다니는 공덕을 쌓았으며, ③ 불경에 힘입어 여자노비로 태어났고, ④ 염불정진하여 마침내 성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육면이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은 <공양+염불>의 인연이 보응을 받은 결과이다. 첫 번째 계통보다 두 번째의 계통에서 육면의 성불을 육면 개인의 신심이나 노력보다 '인(因)', 즉 인과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육면의 일화가 설화화되는 과정을 역사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알아보았다. 경덕왕대에 남자신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염불결사가 결성되었고, 육면은 개인적인 신심을 기반으로 한 염불수행을 통해 왕생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의 주인인 아간 귀진과 그가 속한 염불결사를 결속시키는 주요계기가 되었고, 이후의 염불결사에도 육면의 설화가 동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육면이 왕생을 한 시기인 을미년을 기점으로 경덕왕대에 이어 헌덕왕대에도 육면설화가 동인이 된 염불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미타신앙의 확산 및 미타결사의 조성은 육면의 일화를 확산시켰고, 설화화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여인왕생 사례인 육면설화가 신라사회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신라에는 이미 여성으로서 성불의 원(願)을 세웠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면의 왕생이 주목받

은 이유는 그가 계집종, 즉 여성이고 노비였기 때문이었다. 옥면이 왕성한 이후에 이를 기리기 위한 사찰이 세워졌던 것은 계집종임에도 불구하고 왕생을 할 수 있었던 옥면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신라 중대의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의 결합은 여성이자 노비였던 옥면이 왕생하고, 그 일화가 재생산되면서 설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계집종이었던 옥면의 왕생은 신라 사회에서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동시에 극락정도를 염원하던 신라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투고일자 : 2017. 07. 21. 심사일자 : 2017. 08. 05. 게재확정일자 : 2017. 08. 21.
주 제 어 : 신라, 옥면, 성불, 왕생, 설화
Key words : Shilla, Wukmyeon, becoming a Buddha("Seongbul"), Rebirth("Wangsaeng"),
tales

참고문헌

『三國遺事』

『三國史記』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正藏』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아세아문화사, 1977

김영미, 1994 『신라불교사상사연구』, 민족사

中村元, 1993 『원시불교 그 사상과 생활』, 동문선

이범교, 200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하, 민족사

이창숙, 2015 『불교의 여성성불사상』, 인북스

이형우, 2000 『신라초기국가형성사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지산, 회암 공저, 2001 『한국불교정토종 범맥과 정토사상』, 무한

韓普光, 2000 『信仰結社研究』, 如來藏

현승, 2013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운주사

한국여성불교연합회편, 1993 『불교의 여성론』, 불교시대사

구자상, 2010 『여성성불의 이해』, 불교시대사

塚本啓祥, 1986 『法華經の成立と背景』, 佼成出版社

岩本 裕, 1980 『佛教と女性』, 第三文明社

김양순, 2009 「憬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김영미, 1985 「統一新羅時代 阿彌陀信仰의 歷史의 性格」 『한국사연구』 50·51

_____, 2003 「高麗 眞覺國師 惠諶의 女性成佛論」 『梨花史學研究』 30

_____, 2005 「고려시대 아미타신앙과 여성성불론」,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수학술제』 13

金煥泰, 1984 「新羅佛教의 現身成佛觀」 『新羅文化』 1

남동신, 1995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라정숙, 2009 「삼국유사를 통해 본 신라와 고려의 관음신앙」 『역사와 현실』 71

류용범, 2010 「阿彌陀淨土 念佛往生에 대한 研究」, 위덕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광연, 2010 「통일신라의 범화신앙과 불교문화」 『한국사연구』 150

- 박미선, 2010 「의상과 원효의 관음신앙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60
- 辛鍾遠, 1982 「三國遺事 〈郁面婢念佛西昇〉條에 대한 一考察」 『史叢』 26
- 신종원, 1988 「삼국유사 옥면비념불서승조 역주」 『신라문화』 5
- _____, 2009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에 보이는 역사와 설화」 『전통문화논
총』 7
- 安玉善, 1998 「초기 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 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哲學研
究』 68
- 이현옥, 2003 「여성성불의 근거와 그 의미」 『불교학보』 40
- 전해주, 1986 「변성성불론의 비판적 검토」 『불교사상』 27
- 조경철, 2009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역사와 현실』 71
- 崔成烈, 1981 「三國遺事 郁面婢念佛西昇條의 몇 가지 問題點」 『韓國佛敎學』 6
- 한보광, 1994 「신라·고려대의 만일염불결사(万日念佛結社)」 『佛敎學報』 31

<Abstract>

Shilla people's perception of the Concept of "Reborn as a female," and Its meaning

Lee Hyun-ju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societal meaning of the "Wukmyeon" tale, in order to also analyze the Shilla people's perception of the Concept of "Reborn as a female."

First of all, there are two known versions of this Wukmyeon tale. The first one is composed of four stages: ① the female slave Wukmyeon, ② her Buddhist prayers(Yeombul), ③ her rebirth in the West("Seoseung, 西昇)," and ④ certain remaining traces of her. The second one features some additional elements, such as the connection to her past lifetime. According to that, ① she (actually he at the time) violated her(his) teachings(戒) and was punished and became a cow, ② then at the Buseok-sa monastery carried the Hwa'eom classical texts and in the process proved herself worthy once again, ③ and was thus reborn as a female slave, thanks to the help of Buddha, ④ and finally became a Buddha herself after certain character-building rounds. This tale shows that her becoming of a Buddha was a combined result of presenting Buddha with presents and also engaging in extensive prayers, and of course, eventually having such efforts recognized by Buddha. Between the two versions, the second one puts more emphasis upon the notion that Wukmyeon's becoming of a Buddha was made possible not because of her personal faith or conscious efforts but because it was meant to be that way from the very beginning. We can see that in the process of Wukmyeon's story turning into a tale, the historical details were romanticized to a certain extent.

Meanwhile, also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surrounded the process of her story becoming a tale. During the reign of Shilla king Gyeongdeok-wang, a male-based Prayer circle("Yeombul Gyeolsa") was formed, while Wukmyeon was reborn through prayer rounds [also partially] based upon personal faith. Her(His) experience and story served as a motivation tale to reinforce the inner bonds of the Yeombul Gyeolsa, and continued to serve that role in later periods as well. The year Wukmyeon was reborn was the Eulmi year, and following Gyeongdeok-wang's reign, the Yeombul Gyeolsa prevailed also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deok-wang,

which was powered by the tale of Wukmyeon as well. And in subsequent periods, as the “Mita” belief spreaded and a “Mita circle” was eventually formed, the tale of Wukmyeon spreaded even more, in a form and contents which were further romanticized.

This Wukmyeon tale, the sole example of a ‘reborn as a female’ tale, had a specific meaning in the Shilla society. This tale of Wukmyeon, who was a female and a slave at the same time, was the product of the Shilla dynasty’s Jungdae period during which the “Gwaneum” belief and the “Mita” belief merged with each other. The story of a reborn female slave was a tale that could encourage the public to believe in Buddhism even more strongly, and give the Shilla people consolation and hope, as they were hoping to be reborn in heaven themselves.